

# 말레이시아 농업현장을 둘러보고 (Asia DHRRA 회의 참가)

한농연중앙연합회 총무과장 라정한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아시아 드라'라는 NGO 단체의 농민상호방문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졌다. 아시아 드라는 1974년도에 설립되어 농촌의 인적자원 개발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국제적인 NGO 단체다.

아시아드라는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만든 아세안펀드라는 곳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곳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데 아세안펀드 본부는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한다.

아시아드라의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네팔, 타이베이, 한국, 일본 등 10개국이다.

아시아 드라도 한농연처럼 회장단이 있고 실무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를 잘해서 그런지 필리핀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사무총장도 마린이라는 이름의 필리핀 여자였는데 들리는 말로는 필리핀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한 경력이라고 한다. 소위 말하는 필리핀 인텔리라고 보면 될 듯 하다.

이번 아시아드라의 일정은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였으며 처음 3일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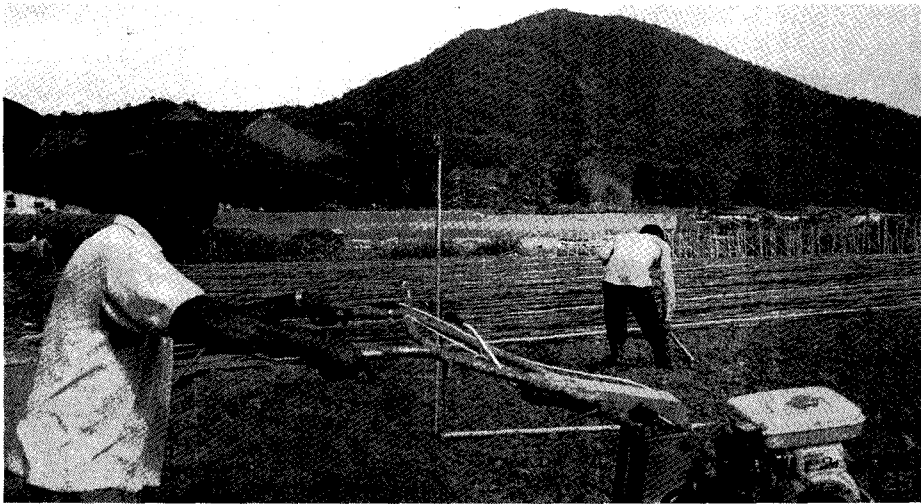
7시까지 WTO와 세계화에 대한 각국 농민들의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5일동안은 현장의 농가를 방문하여 직접 숙식(home stay)을 하며 말레이시아의 생활을 직접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한농연의 실무자인 나를 비롯해 전 한농연시흥시연합회 부회장 윤상준씨와 서울농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덕병 박사 등 3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말레이시아까지는 약 6시간 15분 정도가 걸렸다. 시차는 1시간이었는데 우리 시간이 말레이시아 시간보다 1시간 빨랐다. 즉 한국에서 저녁 5시면 그쪽은 저녁 4시다.

숙소는 공항에서 40여분 정도 떨어진 이슬람 지역에 있는 퀄리티 호텔이었다. 말레이시아는 원주민과 인디아(인도인), 중국인들이 혼용되어 있는 다인종 국가다. 동남아시아 화교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고 하더니 과연 그런 것 같았으며 말레이시아인들중에는 화교에 대해 부를 중국으로 가져간다고 하며 별로 안좋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슬람지역은 술을 팔지 않고 우리 시각으로 본



◀ 네팔 노동자와 농장 주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다수의 외국 농업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임금은 하루에 8천원에서 만원정도이다.

다면 약간은 건조한 지역이었다. 나 자신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에 행동 하나하나가 참 조심스러웠다.

22일과 23일은 하루 종일 회의만 하였다. 그것도 순전히 영어로만... 정신을 집중하다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왜 영어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후회막급이었고 회의가 끝날 때 쯤이면 몸이 녹초가 될 지경이었다.

24일부터는 드디어 말레이시아의 생생한 생활상을 볼 수 있었다. 5일동안 약 5개의 마을을 돌아보았는데 그곳 마을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농민들은 WTO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나의 영어실력이 짧은 관계로 현지의 보고서는 같이 갔던 박덕병 박사의 기록을 인용한다.

## 1. 창 라마(Chang Lama) 마을

창 라마 마을은 오랑 아슬리(Orang Asli)라는 원주민(indigenous people)이 약 600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부족장은 바하반독(Bahabandok)이라는 57세의 여자 부족장이다. 마을의 주요 의

사결정은 주로 마을 회의에서 결정되고 마을 회의는 1주일에 2-3번 마을회관(community hall)에서 이루어진다. 주요 수입원은 팜 오일(palm oil), 전통적으로 만들어 오던 대나무로 된 수공예 품, 두리안(durian), 채소, 그리고 숲 속의 자연상태에서 채취한 바나나 등이다.

이 마을은 2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의 안정과 개발위원회(Village Safety and Development Committee)과 SPNS(Persatuan Kehidupan Baru Hati)이다. 주요 시설은 초등학교 1개와 마을회관과 간의 숙박시설이 있다.

이 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을 주민은 말레이인들이 살기 오래 전부터 살아오던 원주민이지만 마을을 둘러싼 대부분의 땅들이 마을 주민들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와 심한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오랫동안 정부와 투쟁 끝에 5년 전에 300ha를 정부로부터 불하받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더 많은 땅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수렵생활을 해오다가 5년 전부터 팜 오일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주

민들은 보다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밀림을 개간하여 팜 오일 나무를 심고 있다.

## 2. 카메룬 하이랜드(Cameron Highlands) 마을

(카메룬 하이랜드는 가는 길이 어찌나 꼬불꼬불하고 험한지 우리나라 대관령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았다.)

카메룬 하이랜드는 250여 가구가 대부분 인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카메룬 하이랜드는 열대지방이지만 고산지대로 날씨가 서늘하여 모든 농가가 채소, 꽃, 차 등을 재배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말레이시아에서도 특수한 곳이다. 재배되고 있는 채소는 고추, 토마토, 콩, 배추, 무 등이며, 현재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종자가 한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의 채소 종자를 수입해 간다고 한다. 생산된 채소와 꽃은 대만, 일본, 싱가포르 수출되고 있다.

주요기간 시설은 1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몇 개의 공공시설이 있다. 마을 조직은 카메룬 하이랜드 인도인 농민연합회(Cameron Highlands Indian Farmers Association)가 있으며, 이것이



▲ 아시아드라(Asia DHRRA)회의 장면.

마을의 중심 협의기구이다. 이 조직은 1994년에 발족되어 현재 22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회의는 1년에 2번 정도 개최되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마을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을 주민이 모두 인도인이기 때문에 말레이 정부로부터 기본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땅을 찾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 정부로부터 많은 감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마을 회의도 자주 열지 못한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곳의 농업이 열대지방에서는 재배하지 않는 작목이라서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기술을 구전이나 다른 나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배운 것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은 고산지대의 서늘한 기후 조건을 이용하여 채소뿐만 아니라 꽃을 재배하여 관광농업을 하고 있었다.

현재 계속적으로 밀림을 개간하여 채소와 꽃을 재배하고 있으며, 1년 3모작 등으로 토양이 급속히 산성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농약 비료를 사용하여 WTO 농산물 무역협정의 기준치가 요구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이 예감되고 있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과 달리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많은 농업노동자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2-5명 정도의 농업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하루의 임금은 8천원에서 만원 정도였다.

## 3. 깨파양(Kepayang) 마을

깨파양 이포(Ipoh)라는 큰 도시의 근교 농촌으



▲ 카메룬 하이랜드농장 전경.

로 총 인구는 1688명으로 342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무슬림이다. 마을 주민들의 92%가 인근의 이포시에서 농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8%의 주민이 전업, 겸업 농민이다. 주요 작물은 옥수수, 사탕수수, 채소, 과일이다. 근래에 채소 중 고추재배가 늘어가고 있으며, 고추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고추장과 비슷한 고추잼을 마을 부녀회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그 맛은 우리나라 초고추장 비슷한데 약간 더 달다.

마을의 주요 기반시설은 수도물, 전화, 마을회관, 이슬람 사원, 유치원 등이다. 마을의 주요 조직은 5개로 마을 안정을 위한 마을 협의회로 JKKKK 있으며, 무슬림 조직으로 Mesjid, 부녀회 조직으로 KPW, 농업 조직으로 Proyek Berkeiompak, 청소년 조직으로 Persatuan Bella 등이 있다.

이 마을은 도시근교로 농업보다는 농외 직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무역자유화에 말레이시아의 다른 마을과 달리 수입자유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었다.

#### 4. 세만가트(Semangat) 마을

세만가트 마을은 약 800명의 주민이 200여 가구를 이루어 사는 마을이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무슬림이고, 총 400 ha의 면적에 부분적으로는 바나나와 팜 오일을 재배하고 있지만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마을의 촌장은 52세 마히딘 이스미엘(Mahidin Ismail) 씨로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닭을 키우는 부업을 하고 있었다.

마을내 조직은 3개로 마을 안전을 위한 보호조직은 RELA가 있으며, 청소년 조직으로 Persatuan BELIA, 농업조직으로 KELOMPOK가 있다.

WTO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이 마을에서 변화

는 많이 없다. 이 마을은 대부분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직 쌀농업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쌀농업과 관련하여 변화는 없으며, 팜 오일의 수출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바나나 농장을 팜 오일 농장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경작면적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으며, 농작업을 기계화하고 있다.

## 5. 텔레가 네나스 (Telaga Nenas) 마을

텔레가 네나스 마을은 어촌으로 마을 주민들이 어업과 농업을 겸하고 있다. 어업을 통하여 마을 소득은 높은 편이다. 마을내 초등학교와 마을 회관이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400여명에 80여 가구가 살고 있다.

WTO 개방 이후로 농민들은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바닷가 주변에 새우 농장을 만들어 흑새우(black prawn)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새우 농장이 계속 늘어 현재 1만 ha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 6. 맺으며

비록 찾아 본 마을은 얼마되지 않지만 각 마을을 돌아 본 결과

첫째, WTO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 농업은 수출작목으로 팜 오일을 정부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른 작목의 경작지가 팜 오일 경작지로 바뀌고 밀림이 계속하여 개간되고 있다.

둘째, 말레이시아 농민들은 다국적 자본에 의한 간접적인 착취와 함께 WTO 체제에서도 경쟁력

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기업(government company)이라는 국내자본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셋째,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각종 채소류, 화훼류 그리고 말레이시아 특수 팜오일은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 WTO 농산물 안전허용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며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다.

넷째, 말레이시아에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은 팜 오일이 유일하다. 그러한 이 팜오일도 현재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재배가 확산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적인 농촌개발 모델로서 농촌공업화, 농촌관광, 지역푸드시스템, 환경농업, 농촌복지 정책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한농연같은 강력한 농민단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른 나라 농민들의 부러움을 샀는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로체계라든가 농사기술이 아시아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졌다.

그리고 WTO와 각종 농업협상이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모습을 말레이시아에서는 별로 볼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훈련되고 교육받은 농민들인가, 내가 몸담고 있는 한농연이라는 조직에 대해 절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고 말레이시아에 국한된 한계가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농업과 현지의 생활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참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민농연